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9
----------	------

발의연월일 : 2024. 11. 12.

발 의 자 : 김윤덕 · 임오경 · 정동영  
안호영 · 박홍배 · 박희승  
이춘석 · 윤준병 · 위성곤  
이원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정비나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u>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u> <u>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u> <u>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u> <u>를 받아야 한다.</u> ⑥ · ⑦ (생   략)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u> <u>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u> <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